

총장 사퇴 번복 논란 ... 흔들리는 '지스트'

(GIST·광주과학기술원)

지역 연구수당 싸고 노조와 갈등 ... '김기선 총장 사의' 진실 공방
연구인력과 행정직 직원 간 파트너십 부재로 생긴 괴리감도 원인

지역 과학 인재 양성과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광주의 3대 특화분야 융합연구를 추진해야 할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가 격랑에 휩싸였다.

총장 재임기간 거액의 연구수당 수입 논란으로 인한 노조와의 갈등으로 지난 18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선 지스트 총장이 하루 만에 사의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지스트와 노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19일 학내 실무진 등에게 명확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의표명 관련 보도자료 배포 경위를 놓고도 작성처인 기획처는 김 총장이 사의표명을 확인했다는 주장이지만 당사자는 보도자료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의 사퇴 번복 사태가 진실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과학 교육 산실인 지스트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사퇴 논란 부른 김 총장 연구수당 지스트 총장의 사퇴(?) 사태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최고 수장인 김 총장이 대학 CEO로서의 책무 보다는 개인의 연구비 행거기에 집착했다는 지스트 노동조합의 지적으로부터 시작했다.

지스트 노조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이 지난 2년간 급여 4억여원 외에 3억원 이상의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챙겼다"며 대학을 경영해야 할 총장으로서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받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스트 노조는 또 "김 총장이 2019년 4월 취임 후 2년간 2개의 센터장을 겸직했다"며 "지스트와 비슷한 과학기술대학이나 정부 출연기관, 국공립 어느 대학도 총장이 연구과제 센터장을 겸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총장의 자질을 문제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스트 노조는 전 직원 223명 중 176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한 결과, 김 총장은 10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5.20점을 받았다.

이후 지스트 노조는 18일 또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장은 취임 후 2019년 6월부터 20회, 약 60% 이상의 직원 인사이동을 단행하는 등 거의 매일 인사를 시행해 직원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 이후 김 총장 사의 표명 보도자료가 나왔으나 다음날 김 총장이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이 혼란에 빠졌다.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총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보냈으나 연락되지 않았다.

◇교수와 행정직(노조)의 괴리

이번 지스트 사태는 표면적으로 김 총장 개인과 노조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연구인력과 행정직 직원들의 파트너십 부재로 생긴 괴리감이 깔려있다는 게 지스트 안팎의 분석이다.

지스트의 일부 교수들은 노조가 지스트 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스트의 한 교수는 최근 학교 게시판에 "지스트의 직원이 계약직 포함 300여명 있는데도 과거 10년 전보다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 결핍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 사무실도 문 닫고, 담당자의 외출연가 등으로 연구시설 사용은 오후 6시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현재 행정직 직원들의 임금은 지스트측이 지원하는 고정분과 수탁한 연구과제의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임금의 상당 부분이 교수들이 떠난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행정직 직원을 업무의 파트너가 아닌 종속된 개념으로 홀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 탓에 지스트에서는 인사 이동이 일상화돼 있고, 노동법상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삭의 여직원들이 늦은 시각까지 또는 야근까지 하다가 유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또한 연구시설을 오후 6시 이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노조는 "직원들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근무하는 기관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기관에도 없다"면서 "실험실·연구실 등은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되고 있고, 다만 일반 행정동이나 사무실 등은 업무이후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김 총장은 23일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치 않으며, 최종 거취 문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양산호수공원 벚꽃 '활짝' 21일 광주 북구 양산호수공원 주변에 벚꽃이 만개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공대법 3월 국회 처리 '청신호'

"부영주택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전남지사·나주시장 연대 서명

국회 법사위에 넘어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전남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 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전공대특별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지난 19일 부영의 아파트 건축에 있어 개발이익환수제를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에 연대 서명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최근 부동산 투기 정국과 맞물려 아파트 건설 업체인 부영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국회 산자위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고 법사위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영이 한전 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나주 골프장 잔여 부지에 최고 28층 규모 5383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계획, 특혜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부동산 투기 정국 속에서 한전공대 특별법 처

리와 관련, 부영 특혜 논란을 이슈화한다면 민주당 법사위에서의 강행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와 강 시장이 부영의 나주 골프장 잔여 부지 아파트단지 조성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를 최대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적시함에 따라 법사위에서의 한전공대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는 자가 상승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에 따른 이익 환수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순수한 기부 부지를 제외하고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공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적시한 것은 한전공대 특별법 처리에 일정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과연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인지 긴장의 끈을 놓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대검, 무혐의 결정...법무부 보고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남 법무부에 이같은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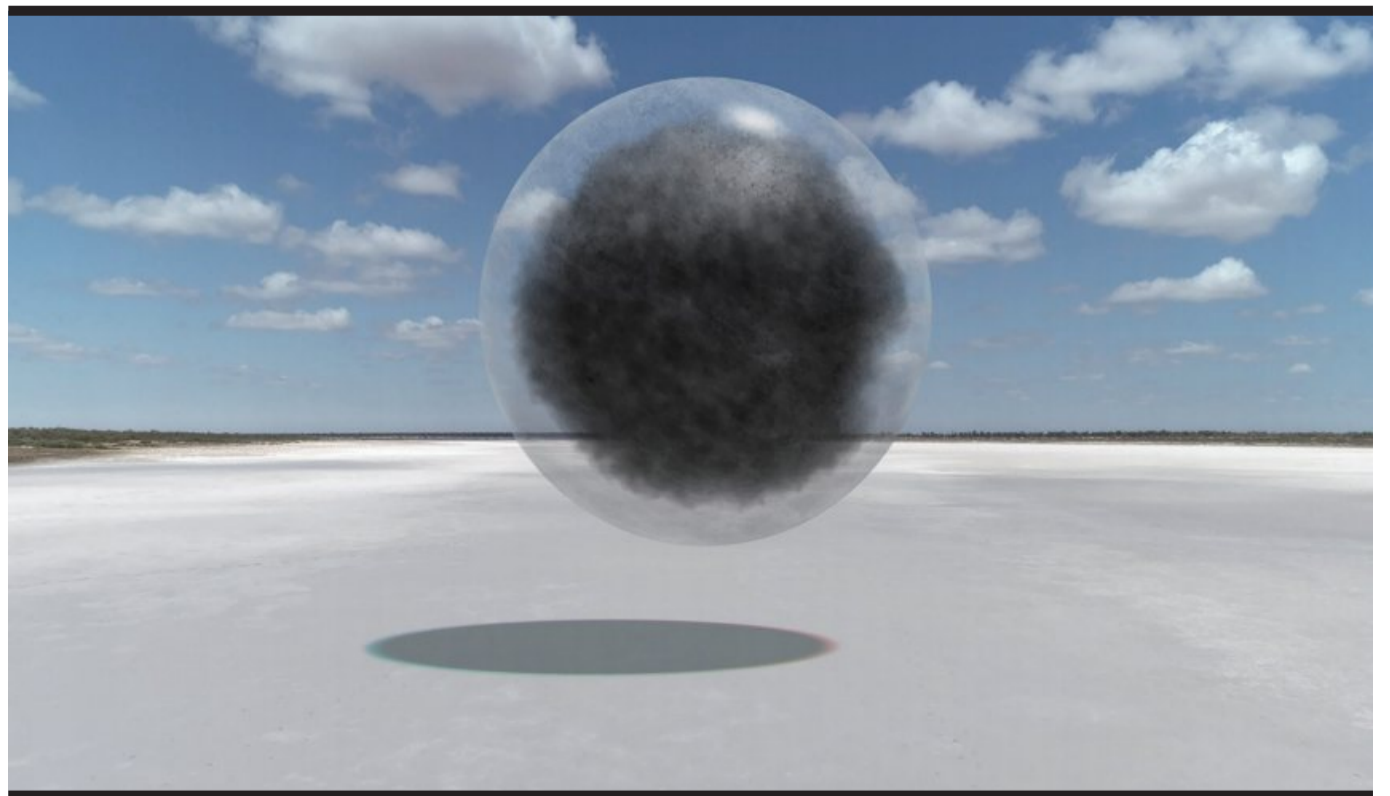
민주 당권 주자들 호남 공략 가속 ▶3면

KIA 시범경기, 안타 더 치고 실책에 무릎 ▶18면

보성 태백산맥문학관을 찾아서 ▶22면

전남도립미술관 개관특별전 Exhibition in Celebration of the Opening of Jeonnam Museum of Art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
Beneath the Mountain,
Along the Water



© Laurent Grasso / ADAGP Paris, 2021
Courtesy of the artist, Sean Kelly, New York and Perrottin

전남도립미술관
2021.3.22. - 2021.7.18.

전시 I 허백련, 허진
전시 II Baruch Gottlieb, 김선두, 김진란, 세오, 이이남, 장창익, 조병연, 허달재, 허진, 황인기
전시 III Laurent Grasso

